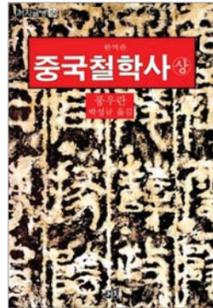


중국 철학, 한국인 정신세계 저변 이해에 도움



리더의 책장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관세청장



중국철학사

중국철학사(상) 까치글방, 풍우란 지음, 박성규 옮김.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역사를 살아온 조상들의 의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고대 중국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2500년 전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역대 중국 사상가들의 이론을 쉽게 풀이하고, 그 당시 사회상황을 설명한 풍우란 선생의 역작인 “중국철학사 상·하” 두 권의 책은 중국의 사상과 문화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인들은 먼저 “철학이 무엇인지?” 이해가 어렵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서구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원조 철학자로 배웠다. 로마제국 멸망후 기독교가 중세의 암흑시대를 가져오면서 서구에서도 철학의 부재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이후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 프랑스의 데카르트, 17세기와 18세기 계몽시대의 토마스 홉스, 로크, 루소, 19세기의 독일의 헤겔 등 서양 철학사의 훌륭한 학자로 기억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원전 6세기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 공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맹자와 순자를 철학자로 불러도 되는지?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의 인물들인 묵경을 저술한 묵자, 도덕경을 저술한 노자, 노장

사상의 계승자인 장자, 법가를 발전시킨 상앙과 한비자, 현재에도 한국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음양오행설을 창시한 주역, 중국에서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도참사상으로 무시되고 있는 풍수지리설의 창시자를 철학자로 불러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 선조에 영향을 준 중국 사상의 대표적인 학파는 유학과 노장사상이다.

중국 사상의 대표적 학파 유학·노장사상… 우리 선조에 영향 중 철학, 윤리학-정신수양의 道 추구… 물질문명 천시 특징

서양철학은 자연계와 인간사회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와 원칙을 탐구함에 따라 수학과 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중국의 철학은 윤리학과 개인의 정신수양의 道(道)를 추구함에 따라 물질문명을 천시한 점이 특징이다.

기원전 6세기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는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고 봉건제후의 열강이 끊임없이 영토전쟁을 벌이던 춘추시대의 사상가이다. 당시는 많은 작은 제후국들이 멸망하고 멸망한 국가의 귀족들이 평민신분으로 강

등되어 능력을 발휘하여 관리직을 추구하던 시기다. 공자는 중국 최초로 학원을 만들어 학비를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봉건 제후의 정치자문을 담당했던 직업 교육가이며 정치 사상가이다.

공자는 혼란한 정치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주나라 건국자인 주 문왕과 무왕, 전설적인 물인 요순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시기로

생각하고, 국가질서를 위해 예악(禮樂)을 중요시했다.

공자의 출생지는 현재 산둥성 지역으로 당시는 노나라이다. 노나라는 주나라 창업자 중의 한사람인 ‘주공’의 후손이 다스리는 제후국으로 주나라의 고대 서적이 왕실 도서관에 많았다.

이는 학구파인 공자가 시경, 서경, 예기 등을 다시 정리하고, 노나라 역사책인 ‘춘추’를 저술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자의 사상은 공자 사후 100년 뒤에 태어난 맹자와 순자라는 걸출한 제자 때문에 중국의 주류 사상이 됐

다. 맹자 사후 200년이 지난 후 한나라의 동중서가 공자를 스승의 경지에서 제왕의 경지로 신격화하고, 논어와 춘추 등 공자의 저서를 종교의 경전으로 신격화함에 따라 중국사상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경직화되기 시작했다. 공자 사후 1700년이 지난 12세기 남송의 주희가 1000년이상 침체된 공자의 유학을 “성리학”으로 재해석했다. 송나라의 성리학은 원나라 말기 고려의 안향이 들여와서 정도전에 의해 조선의 건국이념이 됐다. 병자호란과 명나라 멸망 후 소중화의 계승을 추구한 송시열 등 ‘노론’ 세력에 의해 계승됐다.

유학사상의 배경은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되는 신분사회의 학문으로,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며, 사람의 물욕과 재물의 추구동기를 비하함에 따라 19세기말 서구 자본주의와 상업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인 정신적 DNA는 아마도 중앙아시아의 도래된 토속 사머니즘사상, 공자의 유학과 주자의 성리학, 노자와 장자의 도학사상,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건너 온 불교사상, 근세 서구에서 전수된 기독교 등이 혼합돼 있다고 생각한다. 풍우란 교수의 중국사상을 통해 우리의 정신세계의 저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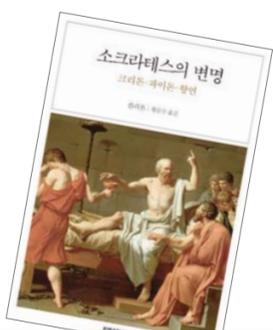
주말은 책과 함께

불의는 죽음보다 빨리 달린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2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가수 나훈아는 지난해 9집 정규 음반 ‘아홉 이야기’를 발표하며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신곡을 내놨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 너 자신을 알라며 특 내뽀고 간 말을 /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하고 많은 형 중에 왜 하필 테스형인가.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신을 믿지 않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어찌다 시대의 희생양이 돼 제물로 바쳐진 걸까? 역사의 후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참패와 스파르타의 지배, 30인 전체자의 공포정치 악몽에 시달리다가 다시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지음/황문수 옮김/문예출판사

민주정치로 돌아온 아테네는 오직 복고만을 꿈꾸며 새로운 진취성을 무시했다.

역사는 “이러한 반동의 시대가 됐을 때 많은 사이비 보수 애국자들은 불행과 몰락의 원인을 새로운 사상, 특히 무신앙에서 구했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침묵이 최선의 호신책인 무지와 선동의 와중에

소크라테스는 비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 결과 그는 아테네 몰락의 원흉으로 지목돼 심판대에 서게 됐다.

재판관들 앞에 납작 엎드렸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테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다. 재판장에 끌려온 그는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나의 언동이 솔직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오를 받게 됐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증오는 바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일갈한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여, 죽음의 회피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 부정은 죽음보다 빨리 달린다”는 말을 남긴다. 필멸과 불멸 중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테스형은 묻는다.

328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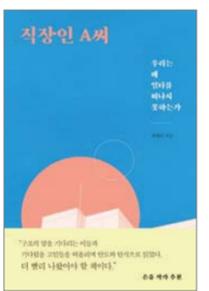
유영수 지음/휴머니스트



일본은 선진국이다. 사법적 약자의 편에서 지 않는 모습은 미투 운동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9년 3월 일본 각지의 지방법원은 전국의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플라워 시위’를 벌였다. 일본 사회에선 여성을 ‘2등 시민’ 취급하는 의식이 뿌리 깊다.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천황 원수, 재군비, 기본 인권 제한, 가족제도 부활’을 내세우며 제국시대의 가부장적 질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었다. 우머노믹스를 앞세운 아베 정부는 파트 타임 노동자만을 대거 양산해냈다. 과거 질서를 쇠신하지 못하는 일본에서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296쪽. 1만7000원.

직장인 A씨

최혜인 지음/봄름



우리 주변엔 “이 거지 같은 회사, 내일 당장 때려치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쉽게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 왜일까? 직장갑질 전문 노무사인 저자는 노동자가 일 중심 사고에 익숙해져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를 뒷전으로 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다 보니 막상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적응하면 관철아 질 거라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자신을 다그친다. 책은 ‘노동자의 열심’을 사용자가 어떻게 악용하고 방관하는지 ‘노동자의 열심’이 불공평하고 무분별한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가학적으로 표출되는지 까발린다. 216쪽. 1만4800원.



▲러시아, 쿠릴4도서 대규모 군사훈련…日정부 ‘항의’
▲미, 신장위구르 강제노역 연관 中 기업 규제 /사진 뉴시스

▲일자민당 간부 “스가 총리, 교체 이유 없어”
▲바이든, ‘범죄 증가 우려’ 여름철 앞두고 총기 폭력 정면 겨냥



▲미 CDC “30세 이하, 모더나·화이자 접종 후 드물게 심장 염증”
▲엘리자베스 여왕, 알현 재개…보건부장관에 “딱한 사람” /사진 뉴시스